

3. 삶을 계획하기

야곱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엘이라 합니다. 우리 삶의 베엘은 어디인가요? 가정, 회사, 학교 등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장소를 택하고 어떻게 예배할지 기록해 봅시다.

★ 내 삶의 베엘: _____

★ 계획: _____


4. 함께 드리는 기도

좌절의 땅을 소망의 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 안에서 평안히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하늘과 연결된 베엘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 하가다

- ① 반드시 소리내어 합니다. ② 매일 반복합니다.
- ③ 집중해서 합니다. ④ 믿음으로 합니다.
- ⑤ 단순하게 합니다.

(여러 구절보다는 한 구절을, 암송보다는 3천 번 읊조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금주의 하가다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 28:15]

베엘의 하가님을 경험하라

모임 순서

- 마음열기 : 지난주를 돌아보며 나누기
- 찬 양 : 찬송 28장
- 성경읽기 : 창 28:10-22 (구약 40면)
- 말씀나눔 : 베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라
- 삶에적용 : 그러면 나는?
- 기 도 : 합심기도
- 주기도문



0. 본문 배경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챈 뒤 벧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내용입니다. 벧엘은 출발지인 브엘세바에서 도착지인 하란까지의 거리 중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이제 막 도망해 온 야곱은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특히 이전에 세우신 언약과 달리 야곱에게 더 자세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어디서든지 지키시고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도망자 야곱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 그 자체만으로 복이 되었을 것입니다(12-15절).

잠에서 깬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고백하며 돌기둥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한 후, 벧엘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서원합니다(16-22절). 사실 야곱의 서원은 조건부로, 하나님의 복을 의심하며 마치 협상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는 침묵하셨고, 오히려 세우신 언약을 완전히 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위에 상관없이 전적으로 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조건 없는 복으로 인해 죄인으로 죽은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1. 말씀 관찰

1) 해가 진 후 야곱이 돌을 베고 잠을 청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15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피해 자신의 집 브엘세바에서 800km나 떨어진 하란으로 도망칩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게 힘을 다해 도망칩니다. 정신없이 도망을 치다 보니 해가 졌고 이제는 돌을 베고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12절).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15절). 야곱에게 이 말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아니, 먼저 그곳에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2) 잠에서 깬 야곱은 무엇을 할니까? (16-19절)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 기름을 붓고, 벧엘이라 부릅니다.

고향을 떠나는 야곱은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과 동일한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13절). 아브라함에게 하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야곱에게 동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포기했는지 모를 언약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야곱은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벧엘이라고 짓습니다.

2. 말씀 적용

1)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봅시다.

2)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이 이루어진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봅시다.